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길

KINU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준비위원회
발족까지



통일은 한반도의 비정상상을 극복하는 궁극의 길이며,
한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목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비전	4
드레스덴 구상의 개념과 의미	6
드레스덴 구상 3대 제안	8
드레스덴 구상 추진 방향	10
통일준비위원회의 의미와 과제	12
Q&A	13



통일 대박



통일 준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비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의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신뢰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한민족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생활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실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서 통일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남북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일련의 검증된 행동을 통해 벽돌을 쌓듯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일대박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질의응답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남북통일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드레스덴 구상의 개념과 의미

개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3월 28일 독일 통일의 상징 지역인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남북한은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일회성이나 이벤트식 교류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교류협력이 필요합니다.”
2014년 3월 28일 드레스덴 공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대통령 연설

드레스덴 구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천명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틀 속에서 보다 구체화된 대북정책 제안입니다.
드레스덴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일준비의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통일대박' 언급과 2월 25일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일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화

민생 인프라 구축 등 남북한 호혜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습니다.



통일준비 실천

'통일대박론'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발전, 북한 변화, 한국의 경제도약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동북아 공동번영 등을 포괄하는 편익 중심의 한반도 통일로 접근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

일회성 또는 이벤트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하는 통일 준비

주변국과 조화를 이루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일을 국가발전의 비전으로 제시

독일처럼 통일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강국으로 거듭나면서 역사의 진보를 이룰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겠습니다.



드레스덴 구상 3대 제안

드레스덴 구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3대 대북 제안을 하였습니다.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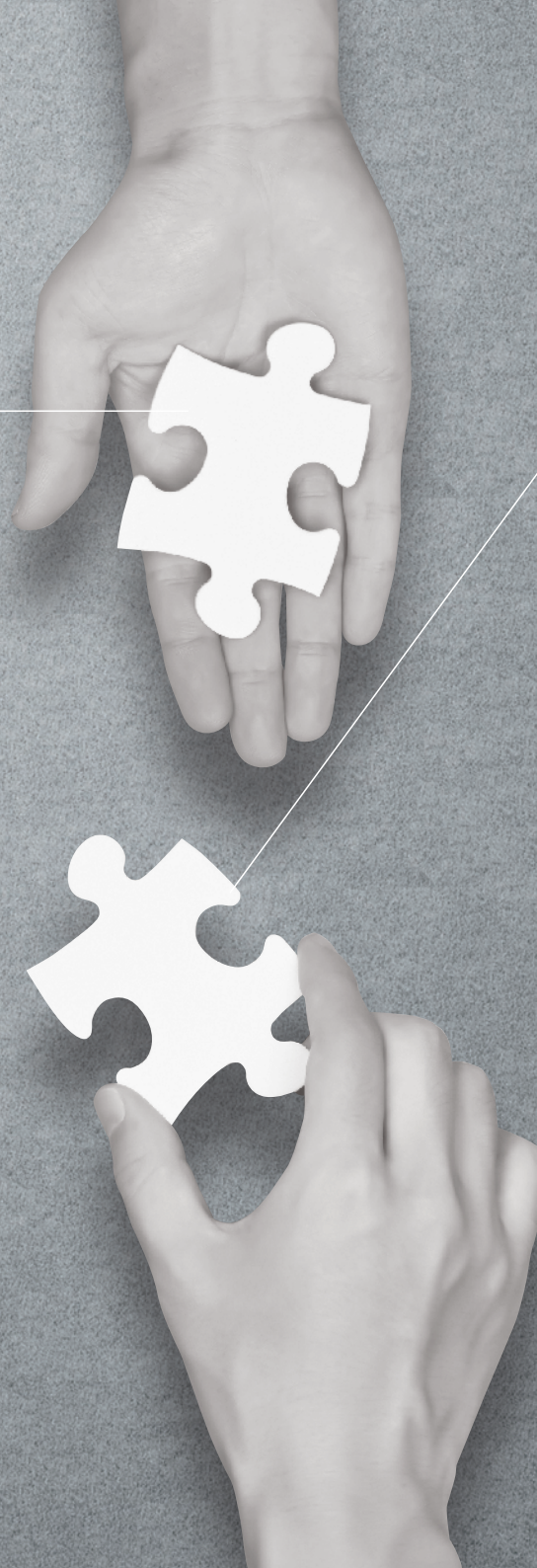
-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영유아 및 산모 지원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 남북 주민 간 접촉 기회 확대
- 역사연구 및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민간교류 확대
- 북한의 경제 개발, 금융 관련 교육·훈련 지원
-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의 구축



- 남북 주민뿐 아니라 동북아의 공동번영에 기여
- 사회간접자본 등 전통적 민생 인프라의 보완 및 구축 지원
- 북한 지역에 '복합농촌단지' 조성
-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

민생 인프라란?

민생 인프라란 남북 주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는 시설, 제도, 가치 등을 의미합니다. 민생 인프라의 제1차 수혜자는 북한 주민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과 동북아 이웃주민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민생 인프라 구축은 평화통일, 국민행복, 국제협력을 지향합니다.

민생 인프라 구축은 주민생활 인프라, 지역환경 인프라, 사회기반 인프라 순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제도 인프라의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단체, 경험 있는 국내외 NGO들과 함께 주민생활 인프라 및 지역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드레스덴 구상 추진 방향

드레스덴 구상은 실천 가능한 통일정책,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남북한이 함께하는 통일정책,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정책의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통일정책

- 북한의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 작은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큰 신뢰를 마련
- 인도적 지원과 민생 인프라 구축 사업부터 실행하고 점차 전면적 실행으로 확대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 우리 사회 내 전반적인 공감과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
- 북한 주민의 민생 회복을 도와주고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해나가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정책

- 국제사회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
- 민생 인프라의 구축을 통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 지향

남북한이 함께하는 통일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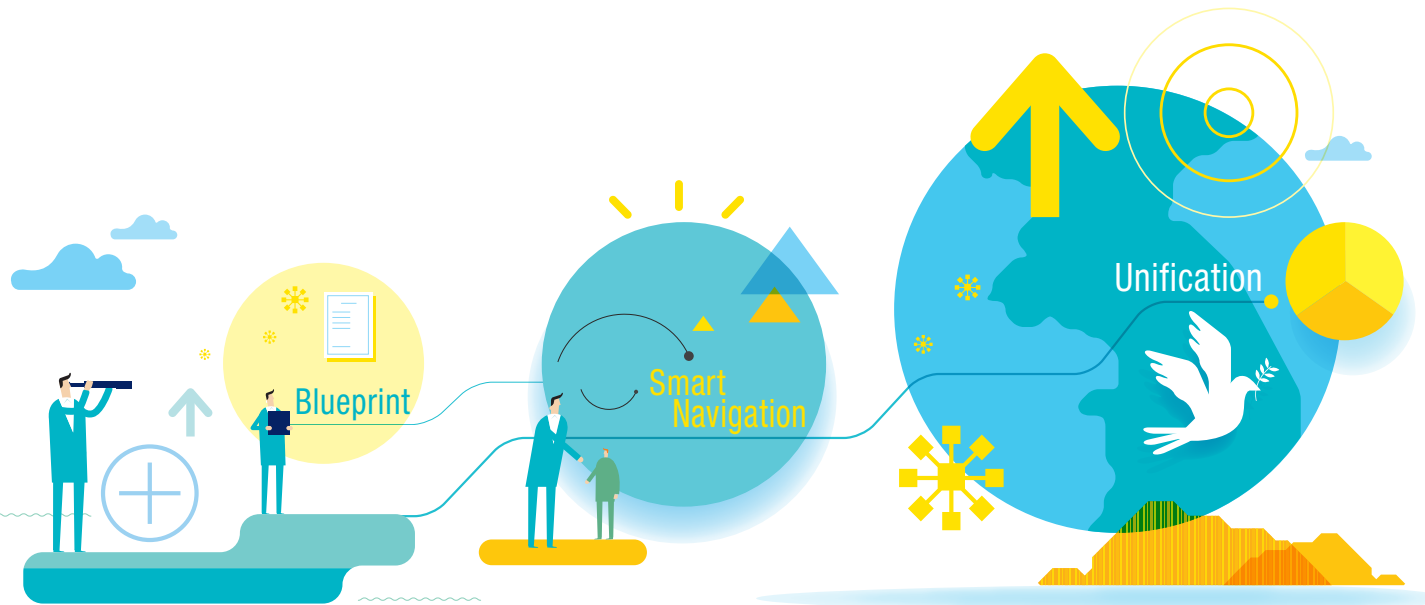
-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병합하는 흡수통일이 아닌 소통과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합의하여 이루는 행복한 평화통일 추구
- 드레스덴 구상이 제안한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한 동질성 회복은 합의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

통일준비위원회의 의미와 과제

2014년 7월 15일,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 제시, 민·관 협력을 통한 통일의 체계적
준비를 위한 것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향후 과제

- 첫째,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통일청사진 마련
- 둘째, 통일을 향한 여정에 있어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역할
- 셋째, 국민의 통일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용광로 역할



Q & A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해 묻다

Q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드레스덴 구상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과거 통일정책과
어떻게 다른가요?**

A
과거 통일정책은 통일을 앞세우면서도
통일로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통일이라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분단관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은 통일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확고히 표명하면서도 통일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노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장밋빛 환상보다는 오히려 통일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많은 도전이 앞에 있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작고 구체적인 과제들부터
실천하면서 벽돌을 쌓듯이 차근차근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Q
**북한은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을
흡수통일 논의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북한의 주장대로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인가요?**

A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북한이
합의하여 이루는 평화통일입니다.
남한이 주도하여 북한을 병합하는 흡수통일은
고비용과 후유증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상식과 인류보편의
공통적 가치를 이해하고 남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북한이 호응하고
합의하는 한반도 통일이 가능합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드레스덴 구상이 제안한
민생 인프라 구축, 인도적 지원,
동질성 회복은 합의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

“한국인들은
결국 하나가 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2012년 3월 26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연

“통일은 대박 Glücksfall 이다.”

메르켈 독일 총리
2014년 3월 26일, 한독정상회담

“북핵문제를 포함한
정치적 돌파구가 열린다면
우리는 곧바로 북한을 도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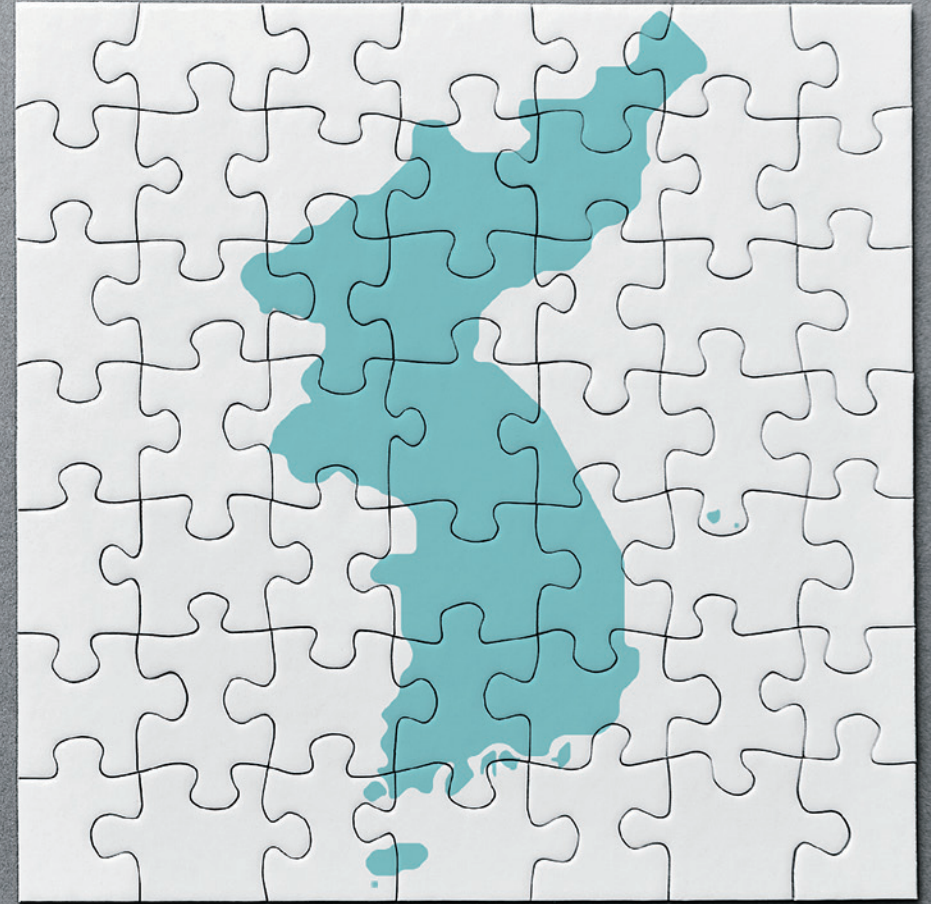
김용 세계은행 총재
2014년 1월 3일, 조선일보 인터뷰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실현되는 것을
지지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
2014년 7월 4일, 서울대학교 강연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

반기문 UN 사무총장
2012년 10월 30일, 대한민국 국회 연설



통일은 남과 북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하고
한민족의 대도약을 이끄는 성장 동력입니다.

통일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02-900-4300



미리 만나보는 통일지도

통일이 우리에게 줄 또 하나의 값진 선물은
 분단의 벽에 가로막혀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북한 땅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남북한의 공동 연구소와 산업 단지도 조성될 것입니다.
 남북한의 화합을 넘어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될
 우리나라의 통일 지도를 만나봅시다.



중국 / 몽골
 횡단철도

시베리아 / 만주
 횡단철도

백두산 등반
 원정대

국경무역
 관광벨트

산업인력공단

광개토왕
 고구려와
 발해 유적

남북경제
 협력특구

DMZ
 세계평화공원

백두대간
 관광벨트

신성장·한류
 문화산업

역사문화사업
 네트워크

환황해
 경제거점

동북아 해양무역
 중심

남해안
 경제 자유구역

생태·평화
 관광벨트

